



에이즈 경제론

온 국민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살기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이다. 대통령 후보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앞서고 있다. 경제는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이즈를 경제에 관한 시각으로 생각해보자. 에이즈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질병이다.

글 김신혜 독립영화감독·드라마작가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은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평균 수명이 20대 중반이라고 한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느 마을에는 어린아이를 빼면 남자가 거의 없다. 말하자면 ‘과부촌’인데 일자리를 찾으러 아프리카 광산으로 갔다가 에이즈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러 젊은 20대~30대 남자들이 없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에이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아프리카에는 에이즈 로드 (road:길)라는 것이 있다.

일자리가 귀해 광산으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주급제로 임금을 받는 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주급을 받은 주말이면 인근의 유흥가에서 매대춘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렇게 감염된 상태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연인, 아내, 아이들에게로 전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일자리를 찾아 오가는 광산을 중심으로 한 길이 에이즈 로드가 되어버린 것이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체력저하와 질병과의 싸움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많다. 또 주위에 에이즈 감염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다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일이 어렵다. 에이즈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지고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 남성들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일 할 사람이 없어지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아프리카의 빈곤에 에이즈가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한다. 에이즈의 경제론은 비단 아프리카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감염 전에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감염 사실을 인지한 후 직장을 잃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편견과 차별 등 사회적 인식 문제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독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후원도 끊지 않은 시선 때문에 그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이즈 감염인 증가 추세는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니 에이즈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 전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에이즈 감염인들이 주위 시선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능력에 따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활 단체를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감염인은 자꾸 증가하는데 국가에서 치료와 복지에 대해 한없이 지원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스스로 자립하고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 에이즈 감염인도 경제 활동을 꾸준히 해 갈 수 있는 경제 활동인구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 경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건강한 정신과 잘못된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조금 더 진화한 사회인식 변화와 조금 더 근본적인 생활과 생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의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감염인의 생계가 안정되면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도 낮아질 것이고 이런 변화는 가장 중요한 에이즈 예방에도 궁극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고로 일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함께 좋아지는 것은 우리 사는 이치가 아닐까?